

Two Natures

두 본성

George Zeller 지음
나영석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Two Natures

By George Zeller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2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두 본성

지은이 | George Zeller

옮긴이 | 나영석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2.11.28.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jetspeed@paran.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 ISBN 978-89-89741-64-0

■ 정가 1,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400주년 기념판(2011)”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차례

역자 서문

제1장 두 본성(Two Natures)

제2장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상태

(The Believer's Standing and State)

제3장 관계와 교제(Relationship and Fellowship)

제4장 법적인(Judicial) 용서와 가족적인(Parental) 용서

역자 서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두 본성의 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된 저울(A false balance)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잠 11:1)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소개하시면서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have been “partial” in the law)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말 2:9)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균형 잡힌 교리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견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또는 과거의 죄는 모두 용서하셨지만, 미래의 죄는 회개해야 해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단 교리입니다!

둘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늘에 간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 회개하거나 죄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견해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교리, 균형을 잃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셋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견해로서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과 일치하는 균형 잡힌 교리입니다.

우리는 두 본성과 관련해서 신자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분과 상태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신자의 상태(STATE)는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분(STANDING 위치)만을 강조함으로 주님께 회개를 하거나, 죄 용서를 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양심이 아주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단번 속죄를 강조함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와 관련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다시 죄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용감하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

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두 찾아서 정리할 것이며,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두 본성의 교리는 미국의 성경 신자 데이빗 워커(David Walker)가 쓴 〈성경의 기초 교리들(Basic Bible Doctrines)〉에서 번역한 것이며,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상태, 관계와 교제, 법적인 용서와 가족적인 용서에 대해서는 미들타운 성경 교회(www.middletownbiblechurch.org)의 조지 젤러(George Zeller) 목사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아니하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 올바른 행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 11월
진리침례교회
역자 나영석 목사

제1장 두 본성

당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해본 적은 없는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 때 한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며, 아직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몸은 썩고, 부패할 것이다(고전 15:53,54).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지를 설명해준다.

두 본성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본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연적 출생으로 받은 전적으로 악한 본성과 새로운 출생으로 받게 된, 새로운 본성 즉 전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본성이 있다.

A. 첫째 본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첫째 본성은 흔히 “옛 사람(the old man)”으로 불린다. 이 본성은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

왔다(롬 5:12, 고전 15:22).

B. 둘째 본성

우리가 받은 둘째 본성은 “새 사람(the new man)”으로 불린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할 때 이 본성이 주어진다. “새 사람”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두 본성의 정확한 순서를 주목하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나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고전 15:46-48) - 본성에 속한 것(옛 사람) & 영에 속한 것(새 사람); 땅에 속한 자(옛 사람) & 하늘로부터 나신 주(새 사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 3:6)

옛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새로운 창조물(new creature)”이 되었지만(고후 5:17) 그렇다고 첫째 출생 때 얻게 된 사악하고, 죄로 가득한 옛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출생(요 3)은 옛 본성의 개혁이 아니라(NOT a reformation of the old nature), 전혀 별개의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이다. 사람이 예

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옛 본성은 제거되지 않으며,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지 새로운 본성만을 받게 된다.

A. 정의

1. 옛 사람은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 자연적 출생으로 받게 된 본성이다(시 51:5, 세상에서, 이것은 종종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으로 언급된다. 요 3:6).

2. 옛 본성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 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 17:9)

3. 옛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는 내재적인 경향(the inborn tendency)이다. “속에서(From within)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from within)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막 7:21-23)

4. 옛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natural man),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것은 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
니라.”(고전 2:14)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
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
니라.”(롬 8:7,8)

B. 첫째 본성의 이름들

1. 옛 사람(the old man) -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
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골 3:9)

2. 겉 사람(the outward man) -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
로워지는 도다.”(고후 4:16)

3. 육신(flesh) -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
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 7:18)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
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갈
5:17)

4. 비참한 사람(wretched man) -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C. 원수

옛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제일의 원수가 있는데, “새 사람”이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갈 5:16,17)

새 사람(THE NEW MAN)

새 사람은 전적으로 옛 사람과 반대가 된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다른 욕망, 다른 태도 그리고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옛 사람이 육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때,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한다. 우리가 자연적 출생(natural generation)으로 첫째 본성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spiritual REGENERATION)으로 둘째 본성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베드로 후서 1:4에서는 “하나님의 본성(divine nature)”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 3:5)

유명한 성경 교사 스코필드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생은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창조이다. 옛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요 3:3, 고후 5:17, 벧후 1:4 참조)

A. 정의

새 사람은 성경에서 죄로 가득한 옛 사람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 신이기 때문이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엡 4:24; 골 1:27; 요 14:20; 갈 2:20)

B. 둘째 본성의 이름들

1. 새 사람(the new man) –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엡 4:24)

2. 성령(the Spirit) –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 5:17)

3. 마음에 숨겨진 사람(hidden man of the heart) –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은유하고 조용한 영

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
니라.”(벧전 3:4)

4. 속사람(the inward man) -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
을 즐거워하나”(롬 7:22)

5.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Christ in you) - “하나님께서서는 이방
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
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골 1:27)

6. 하나님의 본성(the divine nature) -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
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
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
1:4)

C. 원수

신자에게 있는 둘째 본성의 원수는 흔히 “육신(the flesh)”으
로 불리어진 “옛 사람”이다.(갈 5:17)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비교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은 너무나 커서 마치 빛과 어둠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갈라디아서 5:19-21에 보면 육신의 17가지 행위들이 나온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미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댈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22-23, 골로새서 3:12-14, 에베소서 4:32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툼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2-14)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 4:32)

여기에 언급된 특성들은 서로 너무 이질적이어서, 서로 혼동

할 수 없다. 아래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어떤 특성들이다.

옛 사람 (THE OLD MAN)	새 사람 (THE NEW MAN)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	성경 공부를 즐긴다
교회에 참석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교회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기도를 멸시한다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두 본성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위에 언급한 리스트의 마지막에 있다. 옛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며, 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1,12)

우리의 육신(또는 옛 사람)은 죄로 가득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구속하시거나,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죄

를 지으면,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행위이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며,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 3:9)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혼과 육신(the outward flesh)을 구분(DIVISION)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며(요 3:3 born again), 혼은 다가오는 죄의 형벌(지옥)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그 죄성이 뿌리째 뽑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왜 육신이 속 사람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분리된 것(division)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circumcision of Christ)”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operation)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 2:11,12)

A.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 할례는 남자 아이들이 병원에서 경험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made without hands)” 영적인 할례이다.

B. 이 수술(operation)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문자적이 아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할례는 문자 그대로 속사람으로부터 육신의 죄들을 잘라버리는 것이다(CUTS AWAY the outward sins of the flesh from the inward man).

C. 이 잘라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 4:12)

D. 이 분리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을 때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 “죽을(die)”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는가? 물론 아니다. 아담은 그가 먹은 날에 죽었다. 즉 “영적으로” 죽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의 영(우리의 영처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1 dead)

E. 영적인 할례가 행해졌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

(1) 혼이 육신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육신이 혼에 영향을 주어 부패시키지 못한다.

(2)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되었다. 이것은 “성령 침례”에 의해 일어났다(고전 12:13).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자의 영을 자신의 거룩한 영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

이 구절에 언급된 “침례”는 물 침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침례가 골로새서 2:12에서 인용되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buried with him in BAPTISM)”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물이 아닌, 영적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놓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3) 혼은 성령님으로 봉인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악하고, 죄로 가득한 육신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혼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결코 다시 연관되지 못하도록 봉인되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
의 저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엡 1:13)

이 진리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은 팬 피자를 보면 된다. 팬에
붙어있는 피자 한 조각을 분리시켜보라. 우리의 몸은 피자의 팬과
같다. 우리의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속사람은 피자 조각과 같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 붙어 있었다(팬에 붙어있던 피자 조각처럼 ?
in the flesh!). 우리의 죄들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서 이 수술을 행하셔서, 혼이 죄로 가득한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하셨다.

두 본성의 전투

이 두 본성 사이의 전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진행되는 실제적인 싸움이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매우 싫어하고, 옛 사람은 새 사람을 멸시한다. 성경은 “그들이 서
로 반대한다.(they are contrary the one to the other)”고 말하고
있다(갈 5:17).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신약의 서신서를 대부분
썼던) 스스로 느끼고 경험했던 이 끈질긴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
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
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
 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
 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
 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
 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
 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
 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
 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
 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를 건져 내랴?”(롬 7:15-24)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본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바울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비참한 사
 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죄의 옛 사람과 싸워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로마서 6장을 읽으라.

(1)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는 옛 사람을 결코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껏 어떤 그리스도인도 지상에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죄는
 이생에서 모든 성도들을 괴롭힌다(plagues).

(2) 이 싸움은 매일(DAILY) 싸워야 하는 것이다.

(3) 옛 본성과 싸우는 이 전투는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옛 사람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옛 사람과 그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A. 당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롬 6:11,12)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롬 6:2)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롬 8:10)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롬 6:7)

묘지에 있는 시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구절은 죄에 대해 죽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옛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다. 기억하라. 이것은 매일 행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31에 나온 “...나는 날마다 죽

노라(I DIE DAILY)”는 고백처럼 매일 매 순간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이 완전히 소극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그 구절은 우리 자신을 죄에 죽어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살아 있는 자(alive unto God)”**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다(롬 6:11).

B.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 적극적인 부분이다.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당신은 자신의 몸을 죄에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의 욕망에 굴복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화평의 달콤함을 충분히 맛보게 된다.

C. 육신을 위해 기회를 주지 말라

육체적인 생명이 생존하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두 본성도 마찬가지이다. 옛 사람과 싸워 이기는 데 비밀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을 굶겨 죽여서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

우기 위해 욕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롬 13:14) 만약 당신에게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HIS OWN LUST)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려면, 우리는 욕신에게 어떤 기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다(살전 5:22).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몇 주간, 몇 달간, 심지어 몇 년 동안 승리를 쟁취했을지라도, 옛 사람에게 음식이 제공되면, 다시 소생해서 죄를 짓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옛 본성은 야생 동물의 본능과 비슷하다.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들은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피를 맛보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기회가 제공되면 바로 소생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이다.

D. 벗어버리고 입으라

성경은 옛 본성에 대한 승리를 옷을 바꾸는 것에 비유한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

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골 3:9,10)

우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려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미 배웠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명령을 듣게 된다. 이것은 새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옛 사람을 굶기는 반면, 우리는 새 사람을 먹인다. 우리가 앞에서 새 사람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언급했다. 신자는 교리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요 7:17)**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고 느끼지 않는가? 또는 옛 사람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가?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당신은 화평과 행복을 원하는가? 육신에 순종하는 대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대신 기도하라. 점심 시간에 신문대신 성경을 읽으라. 주위 사람들에게 날씨(news)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해 말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

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라.”(딤후 3:8)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
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
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
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
니”(엡 4:22-24)

또 다른 두 원수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전장터 한 가운데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임을 배웠다. 이것은 성령이 왜 하나님의 자녀
를 군사로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된다. 이 전투는 물리적인 것
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
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
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 6:12)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육신적인(물리적) 무기
들로 적들을 이길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속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
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고후 10:4) 기본적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세 원수들이 있다.

(1) 세상: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

량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일 2:15)

(2) 육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갈 5:17)

(3) 마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올 부짚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벧전 5:8-9)

군인으로서 당신은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패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번 공부에서 육신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 그 말씀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마 4장, 눅 4장), 그분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심으로 그를 패배시켰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제2장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상태

1. 신분(위치)과 상태의 정의

믿는 자의 신분과 상태라는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또 심지어 모순되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위치이다.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그 자신의 현재 모습, 즉 현재 그가 어떤 상태냐를 말한다. 신분은 '교리'와 관계가 있고, 상태는 '의무(실행)'와 관계가 있다. 신분은 '사실'이며, 상태는 '경험'이다. 신분은 '하나 됨'이며, 상태는 '교제'라고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과 그 자신 안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지위를 부여해주었다(엡 1:6, 고후 5:2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고, 거룩해졌으며,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자만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받은 신자가 현재 서있는 위치(신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1)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다.

(2) 그것은 내가 구원 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또는 내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3) 그것은 완전하다. 나의 위치는 결코 향상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최상이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통해 나를 보면, 나는 완전히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다. 이 용서는 결코 향상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용서를 향상시킬 수 없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날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4) 나의 위치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하다. 우리는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신분을 나누고 있다. 과거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 중에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육신적인 신자를 이제껏 살았던 가장 최상의 성도들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 옆에 두어 보라. 바울의 위치는 이 육신적인 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동일한 위치를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받을 보상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5) 나의 위치는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그것을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 있을 뿐

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 5:1,2)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이와는 다르다. 불행히도 그것은 전혀 완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변한다.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에 서 있다. 그러나 때로는 패배의 골짜기에 처할 수 있다.

신자의 위치와 상태를 주의 깊게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신자의 상태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신자의 행함(walk)과 신자가 살고 행동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의 상태는 그가 주를 신뢰하는지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달려 있다. 신자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자.

(1) 나의 상태는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यो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약 3:2)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8)

(2) 나의 상태는 더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갈 5:7)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
 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살전 4:1)

(3) 나의 상태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같지 않다. 어떤 신자
 들은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있고, 어떤 신자들은 종종 육
 신 안에서 행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
 과 일치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
 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생에서 결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일은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구원자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뵈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닮아가야 한다. 구원자를 뵈올 때 우
 리는 자동적으로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
 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 3:2) 이 변화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2. 신분과 상태의 구분

에베소서 1:6에 보면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We are ACCEPTED 'in the beloved')**”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3:17에서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 17:5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변형되셨을 때를 상기시켜준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my BELOVED ONE),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을 매우 기뻐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8:29)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기뻐하신다.

신자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매우 기뻐하신다. 당신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주장해 본 적 있는가? 나는 자신을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되시는 분처럼 보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넣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받아들임에 있어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러므**

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Wherefore we labour, that, whether present or absent, we may be accepted of him.)”(고후 5:9)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시간 속에서 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시며,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행을 우리의 위치(신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위치가 실행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감정을 압도하도록 해야 한다. 항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여(요일 1:9), 그 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아버지를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나서 그 기초로부터 움직여라. 당신의 위치(신분)에 대한 사실들이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라.

어떤 특정 구절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말하는지, 아니면 상태에 대해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등의 표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자.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대개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3-14를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반면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본문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서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되거나,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발견하는 한결같은 순서는 신분(교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상태(실행)이다. 여러 서신서들이 그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앞의 세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묘사하고, 뒤의 세 장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행해야 할 바를 묘사한다. 앞의 세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엡 2:6) 그러나 뒤의 세 장에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로마서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 로마서 1-11장은 교리이고 12- 16장은 실행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역주).

이에 대한 실례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신분과 상태라는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한지 알 수 있다. 여기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간단한 실례들을 살펴보자.

(1) 신분(은혜, 교리) -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현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hath perfected 히 10:14)

상태(실제적인 측면, 의무)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마 5:48)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be perfect)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후 13:11) 고린도후서 7:1, 빌립보서 3:12도 보라.

(2) 신분 -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are dead to sin)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롬 6:2)

상태 -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이다.(reckon dead unto sin)”(롬 6:11)

(3) 신분 -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상태 -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엡 5:1)

(4) 신분 - “너희를 부르사(are called)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 1:9)

상태 - “그러므로 주의 간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ye walk worthy of the vocation wherewith ye are called,)"

(엡 4:1)

(5) 신분 -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상태 -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as becometh saints)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롬 16:2)

(6) 신분 -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 2:8)

상태 -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work out your own salvation)”(빌 2:12)

(7) 신분 - “너희는 죽었고”(골 3:1,3)

상태 -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골 3:2,5)

바울은 “너희는 죽었으니 이제 죽으라. 너희는 부활했으니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의 구절 안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신분 as ye are unleavened,)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 하라(상태)”(고전 5:7)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 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신분)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상태)”(벧전 2:9)

정리하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앉아 있으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위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상태(행함)는 우리의 위치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라)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엡 5:8) 이 구절에 따르면 에베소 신자들의 위치는 무엇인가? 주안에서 빛이다. 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존재(위치)에 어울리는 자가 되라”

고 권면하고 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그에 따라 행하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엡 5:3) 에베소 신자들은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믿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신분을 보고,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믿음을 통해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 5:17)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더욱더 새로운 창조물처럼 행하게 된다. 목적은 나의 실제적인 상태를 나의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성경을 배우는 자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주목하라. 그분은 먼저 가장 높은 신분(위치)을 주고, 그 다음에 신자로 하여금 그와 일치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삼상 2:8) 그 다음에 통치자답게 되라고 권고를 받는다.”(C.I. 스코필드)

문제는 종종 우리가 위치보다 우리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우리의 삶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담하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죄들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 등) 당신의 위치에 대한 사실들이 당신의 상태에 대한 느낌을 압도하도록 하라.

위치에 대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를 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에 맞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어느 날 나의 위치와 상태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나의 실행은 완전히 나의 위치(신분)와 일치할 것이다. 나는 성도일 뿐 아니라, 항상 성도답게 살 것이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완전한 위치와 일치하는 완전한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위치에 있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에 있어서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늘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언젠가 실행하게 될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제3장 관계와 교제

1. 관계와 교제

이 내용은 신분과 상태에 대한 공부와 다소 유사하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1:12, 요일 3:2). 한번 출생하면 그 사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일단 출생이 이뤄지면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나에게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 아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슬픔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부자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과 같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새로운 출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9,1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 4:6)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한번 아들이 되면 항상 아들인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

그러나 이 진리에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은 교제이다.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이라면, 교제는 손쉽게 끊어지는 가느다란 실로 비유할 수 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암 3:3)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함께 교제하실 수가 없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요일 1:5)

그분은 삶 속에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들과는 사귀을 가질 수 없으시다. 교제가 단절될 때 신자는 구원의 기쁨과 노래와 섬김의 능력과 증거와 효과적인 기도생활을 잃어버린다(시 51편을 보라).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지 않는 한 교제는 단절된 채 그대로 있다(이 용서는 구원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용서이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단절된 교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 어떤 신자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왜 병들고 죽기까지 했는가? 그것은 죄를 먼저 자백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11:29-32)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에 가긴 하지만, 이 지상에서 살면서 좋은 간증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잃게 한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suffer loss! 손실도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 3:15)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채 보내진 모든 시간은 영원토록 낭비된 시간이다(왕상 6:1).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될 수 없다는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한편,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시킬 만한 일체의 것들을 크게 두려워해야 한다. 사실, 은혜가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관계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 지속적 인 사귀음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은혜는 죄를 권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은혜는 죄를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1-14)

성경의 실례

구약성경에서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성도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시편 32편과 51편에서 다윗이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

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이것은 자녀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보내진 글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2)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관계란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결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분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원한 안전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마음을 북돋워준다.

제4장 법적인 용서와 가족적인 용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용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

(1) 용어의 뜻: 법적인 용서는 법정에서 행해지는 재판관의 용

서이고, 가족적인 용서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아버지의 용서이다.

(2)법적인(judicial) 용서: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범죄한 인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인간은 범죄를 했고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 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다. 이제 재판관은 범죄한 인간에게 “네가 만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나는 너를 용서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신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법적인 용서를 받게 된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재판관이 아니다. 이제 그분은 그의 아버지이다.

(3) 가족적인(parental) 용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녀이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선고하실까?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족 내부의 사귄이 단절된다.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가 사라진다. 자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곧 그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를 하나님과의 사귄 가운데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그는 가족적인 용서를 받게 된다. 법적인 용서는 구원받을 때 단번에 영원히 일어났지만, 가족적인 용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마다 매번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8-10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
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뭇이 네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
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
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번 중생의 씻음
이 필요하지만, 가족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많은 씻음이 필요하다.

법적인 용서와 가족적인 용서의 비교

	법적인 용서	가족적인 용서
인가의 신분	죄인(롬 3:23)	자녀(요일 3:2)
하나님의 위치	재판관(시 96:13)	아버지(갈 4:6)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롬 6:23)	교제의 단절(요일 1:6)
그리스도의 역할	구원자(딤후 1:15)	대제사장과 변호인 (히 4:14-16; 요일 2:1)
인간의 필요	구원(행 16:30)	구원의 기쁨(시 51:12)
용서를 얻는 방법	믿음(행 16:31)	자백(요일 1:9)

	법적인 용서	가족적인 용서
용서의 종류	법적(롬 8:1)	가족적(요일 1:8-10)
거절의 결과	지옥(요 5:24)	징계(고전 11:29-31) 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에서 보상을 잃어버림 (고전 3:15)
수용의 결과	새로운 관계(요 1:12)	새로워진 교제(시 32:5)
필요한 횟수	단 번 에 영 원 히(히 9:12), 한 번의 중생 의 씻음(요 13:10)	여러 번(많은 씻음, 요 13:8)

법적인 용서를 말하는 성경구절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용서가 주어진 사실을 말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에베소서 1:7, 4:32, 골로새서 2:13.

가족적인 용서를 말하는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요한일서 1:8-10, 누가복음 6:37.

두 가지 형태의 용서 비교

구원을 위해 필요한 용서(행 10:43)	교제를 위해 필요한 용서(요일 1:9)
중요 구절들: 눅 24:47, 행 2:38, 3:19, 10:43, 26:18, 롬 4:7-8, 고전 6:11, 엡 1:7, 골 1:14, 히 10:17-18	중요 구절들: 요일 1:9, 시 51편, 잠 28:13, 시 32:5, 요 13:4-11
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
이 용서의 근거: 그리스도의 피(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 엡 1:7	이 용서의 근거: 그리스도의 피(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 요일 1:7-9
조건(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믿으라 (행 10:43)	조건(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자백하라(요일 1:9)
결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됨) - 요 13:10, 골 2:13, 온 몸을 목욕함!	결과: 신자의 발이 깨끗하게 됨(이 세상에서 걷게 될 때 묻는 더러워짐으로부터 깨끗하게 됨) - 요 13:8-10
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들 가운데 죽게 된다(요 8:24)	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런 몫(PART - 파트너십, 교제, 공유하는 것)도 가질 수 없다(요 13:8; 요일 1:5)
이 용서는 단번에 영원히 받게 된다(구원의 시점에서)	이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반복해서 받게 된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용서(행 10:43)	교제를 위해 필요한 용서(요일 1:9)
이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 그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요 20:23)	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소유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시 51:12)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 받을 것이다(고전 11:32)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 받을 것이다(고전 11:31- 32)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 원한 위치와 연관된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행함과 연관된다
이 용서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 리스도 안에 있다(엡 1:7) 믿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위치!	이 용서를 요구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다(요일 1:7) 믿는 사람의 일시적인 상 태!

옆의 내용은 윌리엄 맥도널드의 <여기에 차이가 있다(Here's the Difference)>라는 책에서 발췌했다. 그는 용서의 두 가지 면을 주의 깊게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 두 용서를 사법적인 용서(구원의 용서)와 부모로서의 용서(교제적 용서)라고 부른다.

사법적인 용서와 부모로서의 용서 비교

	사법적인 용서 (Judicial)	부모로서의 용서 (Parental)
그 사람의 상태	죄인(롬 3:23)	자녀(요일 3:2)
하나님과의 관계	재판관(시 96:13)	아버지(갈 4:6)
죄의	영원한 죽음 (롬 6:23)	교제의 상실 (요일 1:6)
그리스도의 역할	구주(딤후 1:15)	대제사장과 변호인 (히 4:14-16, 요일 2:1)
그 사람의 필요	구원(행 16:30)	구원의 기쁨 (시 51:12)
얻는 수단	믿음	자백
용서	(행 16:31)	(요일 1:9)
용서의 종류	사법적(롬 8:1)	부모로서 (눅 15:21-22)
외면하면 그 결과는?	지옥(요 1:12)	징계(고전 11:31-32)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고전 3:15)
긍정적인 결과	새로운 관계 (요 1:12)	새로워진 교제 (시 32:5)
횟수	단번에 영원히(거듭날 때 한 번 목욕함, 요 13:10)	여러 번 (많은 씻음, 요 13:8)

하나님의 구원 계획

Dr. Ford Porter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지 슬픔을 맛볼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 이나”(롬 6:23)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이라.”(고후 5:21)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레 17:1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 하시느니라.”(롬 5:8)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저의 죄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 17:30)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당신이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0-31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당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당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
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
의 증언과 그분의 간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
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딤후 1:8)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전하면) 나도 하
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

잠깐만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라!(롬 6:23)

당신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7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는...



자기 자신을 제일 앞에 두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

1.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4. 안식일을 기록히 지키라.
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죄인들입니다.

질문 1: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2: 당신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회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

2.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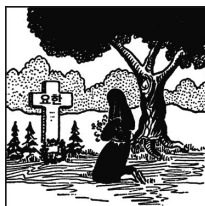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사망과 지옥도 볼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0장 14절)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모두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를 통해서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9절

이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heaven)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다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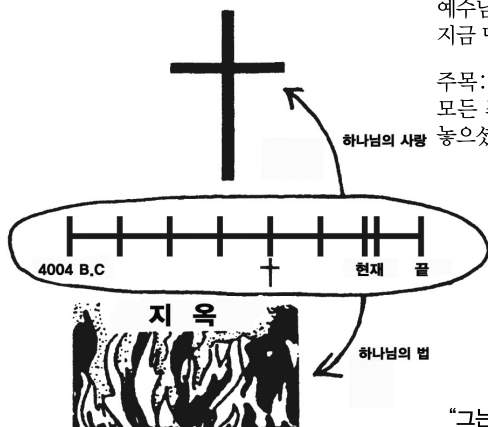
우리가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흠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

그러나 우리의 혼은?



3.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취하셔서 그리스도 위에 그 죄들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이사야 53장 5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모든 이들의 구원자(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천국(heaven) 문은 지금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4. (a)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들,
 (b)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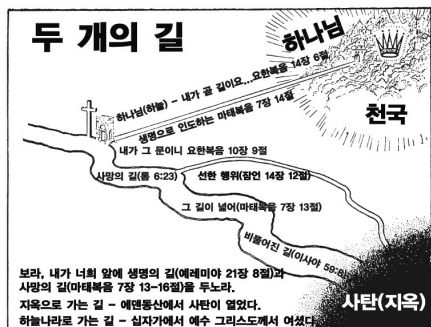
지금 바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은 죄 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선한 행위나 어떤 종교가 아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인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아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요한일서 5장 12,13절)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 저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저의 구원자요,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 부탁하오니 저의 죄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 지금 제 마음의 문을 당신에게 여오니,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의 구원자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명 날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장 28절)

질문1: 당신은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왜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질문2: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올바른 교화에 출석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다른 이들에게 말하십시오. 침례를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7, 48절) 누군가에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말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며 사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아래 연락처로 우리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사무엘 김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64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32	15000
30 창세기 1:1-3 강해 (간극이론)	Jeffre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6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3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52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28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108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56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8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12	4000
55 두본성	George Zeller	64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	56	1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8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0종과 소책자 36종 등 56종의 도서를 총 11만 5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2년 11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